

OECD DAC 동향

(2013. 2. 1)

경협기획실 정책연구팀

1. Development Issu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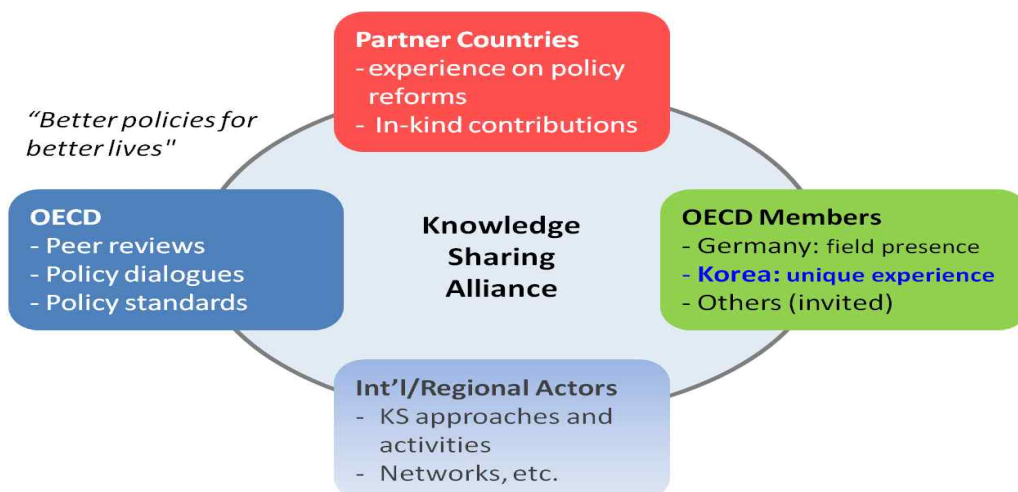
① 한국, OECD 지식공유연대 출범 견인

- '13.1.17, OECD 개발이사회에서 "OECD 지식공유연대(KSA, Knowledge Sharing Alliance)" 출범
- OECD는 'OECD 개발전략(Strategy on Development)' 시행의 일환으로 지식공유 확산을 위한 KSA 구성을 계획하고, 지식공유분야 선도국인 한국을 독일과 함께 협력국으로 초청
- OECD의 전문성과 지식공유 선도국(한국, 독일) 간 시너지를 통해 지식을 공동 생산하고 개발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지식의 실행력 제고

※ 한국의 KSA 기여방안

- ▶ (정책 Level) 한국의 개발경험을 통해 OECD 앞 Policy Input 제공
- ▶ (실행 Level) 한국 원조기관의 현장조직을 통한 정책의 실행지원
- ▶ (KSA 운영)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예산 및 전담관리 Staff 지원
 - 70만유로 예산지원 (2013년), 전담직원 파견(2013년 1분기) 예정

KSA를 통한 상호협력체계



② Aid for Trade, 개발효과성의 동력

- '13.1.16~17, OECD에서 Aid for Trade Policy Dialogue 개최
 - 참석자 : OECD 34개 회원국, OECD/WTO 사무총장, NGO 등
- (주요 의제) 총 6가지 의제로 논의가 진행
 - ① Aid for Trade와 개발의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
 - 주요 공여국들의 경제 상황 악화로 ODA 예산에 대한 제약이 증가하여 ODA의 효과와 성과에 대한 관심도 증가
 - 각국의 무역 증진이 실질적으로 Aft의 효과인지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
 - ② 무역의 제약요소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처리할 것인가
 - Aft는 개발도상국들의 무역역량 중 공급 측면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을 지원해야
 -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주요 산업인 농업의 무역 성과를 증진하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필요
 - ③ 지역적 Aid for Trade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
 - 역내 무역 목표와 국내 무역 목표의 조화를 추구해야
 - ④ 국경의 제약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
 - Aft는 국경 제약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는 각국의 제도·절차뿐 아니라 인프라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가능
 - ⑤ 변화하는 생산패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
 - 무역장벽 해소*는 생산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에게는 오히려 위기
 - * 이 결과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생산시설이 이동
 - 공여국은 개도국 자체 생산능력, 부가가치 창출능력 제고를 지원할 필요
 - ⑥ 민간분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
 - 글로벌 파트너십, Global Review of Aft 등에서 민간의 역할 강조
 -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Aid for Investment에 조명
 - ⑦ Aid for Trade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
 - '무역을 위한 원조 이니셔티브'의 성과를 이어나가고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

2. DAC 회원국 동향

① OECD-한국, Peer Review 보고서 공동런칭 (1/30)

- DAC 가입 후 한국의 첫 Peer Review
- 지난 5년간 ODA 규모 증가, 녹색 ODA 주도 등에 대해 긍정적 평가
- 한국의 ODA 제도는 여타 DAC 회원국들에 비해 안정화되고 분산·중복의 정도는 낮다는 평가로 소모적인 유무상원조 통합 논란을 종식
- EDCF 유상차관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 사업 수요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음을 확인
- 향후 실제 경험에 기초한 개발 지식과 아이디어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한국 고유의 원조 시스템으로의 발전을 기대

② KfW-AFD-EIB, Mutual Reliance Initiative(MRI) 체결 (1/23)

Mutual Reliance Initiative

(목적) EU의 외교·개발협력 정책과 원조효과성 아젠다에 따라 독일 KfW, 프랑스 AFD, 유럽투자은행(EIB) 간 협력증진을 위해 발족

(대상) EU 무상자금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

(협력방식)

세 기관이 에너지·수자원 분야 대형 인프라 사업을 joint-financing 하는 경우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적용

각 사업마다 한 기관이 Leading Financier를 담당하여 착수보고서 작성, 사업 시행 등 대부분의 사업 절차를 처리하는 형식

- Leading Financier를 제외한 나머지 두 기관은 개별 재정지원 협정과 약정액 지출 관련 규정을 담당

(현황) '10년부터 이집트, 우간다 등에서 14개 시범사업을 수행

(기대효과)

단순화된 파트너십으로 지원가능한 프로젝트의 규모가 증대되고, 개발 협력 분야에서 EU의 영향력 증가

③ 호주(AusAID), 미얀마와 개발협력 MOU 체결 (1/29)



- 호주는 미얀마 정부와 개발협력 관련 MOU를 체결한 최초의 서구국가

MOU 주요 내용

- 교육, 보건 분야를 중점지원
- 경제 및 정치개혁에 대한 지원을 확대
- 주요 프로그램 및 원조 우선순위 설정, 원조 성과 평가를 목적으로 정기적인 협의 예정

- 호주는 종전 Australia-Myanmar Aid Program Strategy(2012-2014)를 통해 주요 4대 지원 분야*를 선정한 바 있으며,
* 정치개혁, 빈곤층에 대한 교육과 보건 서비스, 분쟁/재난 피해자 구호, 농촌개발
- 또한, 호주는 최근 영국(DFID)와 공동으로 미얀마 수도(Nay Pyi Taw)에 사무소 개설

3. OECD/DAC 주요 일정 (1/21-2/8)

	<p>955th DAC Meeting 개최 (의제) 1차 Steering Committee*에 대한 피드백 등 * '12.12월 개최되었으며 Global Partnership 정상회의 ('13.10월)를 위한 아래 아젠다를 논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발협력 재원과 개도국 국내 자원 동원(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)의 연계 - 개발협력 분야에 민간자본 투자 - 지식공유를 통한 개발협력 등 <p>** 2월말까지 아젠다 초안을 마련하여 2차 Steering Committee('13.3월)에서 상세 협의 예정</p>
	<p>OECD 사무총장 방한 앙헬구리아(Angel Gurría) 사무총장은 KDI-OECD 공동 컨퍼런스* 참석차 방한하여 VIP 및 당선인 예방 예정 * '한국의 사회정책 과제'라는 주제로 2.5 서울 개최</p>